

元雜劇「度柳翠」 연구*

－ 분석심리학적 자기실현을 중심으로

金光永**

〈目 次〉

1. 서론
2. 無意識과 原型
3. 自我와 自己
4. 페르소나와 그림자
5. 꿈과 상징
6. 아니무스와 自己實現
7. 결론

1. 서론

원잡극 「도류취」(정식 극명은 「月明和尚度柳翠」)는 元代 극작가인 李壽卿의 작품으로, 1) 불교사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불교 度脫劇이다. 度脫이란 말은 濟度解脫의 줄임말로써 도탈극은 수행이 높은 도탈자가 수행이 낮은 피도탈자를 삶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해탈의 문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도류취」에서 극 중의 주인공인 柳翠는 前生에 본시 관세음보살 淨瓶 속의 버드나무 가지의 신분이었다. 비록 버드나무 가지는 식물이나 관세음보살 정병 속의 버드나무 가지는 관세음보살의 大慈大悲를 상징하며, 淨瓶 속 不死의 甘露水를 고통 중의 중생들에게 뿌려주는 데도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세음보살 정병 중의

* 본 연구는 2020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1) 『元曲選』에서는 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李壽卿의 작품이라고 여긴다.

버드나무 가지는 청정함과 신성함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聖物이다. 그런데 청정하고 신성한 세계인 聖界 속에서 지내던 정병 속의 버드나무 가지는 어느 날 문득 오염된 생각을 한 죄로 俗界인 杭州의 妓女인 柳翠로 貶謫된다. 그리하여 극 중의 류취는 속계에서 기녀 생활로 인한 迷妄과 번뇌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때 극 중에서 류취는 月明和尚이라는 수행이 높은 高僧을 만나게 되며, 류취는 월명화상의 도탈을 통하여 마침내 인생의 眞意를 깨달아 새로운 존재로서 재탄생하여 다시 본래의 청정하고 신성한 聖界로 되돌아간다.

분석심리학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융(Jung, Carl Gustav 1875-1961)이 창시한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융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분석학으로 유명한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와 떼어 놓을 수 없다. 융은 프로이트의 유명한 저서인 『꿈의 해석』(1900)을 보고서 매우 감격하여 1907년 프로이트가 있던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가서 프로이트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13시간 동안 긴 토론을 하며 프로이트에 감복하였다. 그리하여 융과 프로이트의 관계는 매우 좋아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며 국제정신학회 회장직을 융에게 맡겼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난 지 6년만에 의견의 차이로 헤어졌고, 융은 1913년부터 1919년까지 6년 간 모든 사회적 지위나 활동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관조하는 데 몰두하여 자신의 분석심리학을 창시하였다.

융의 분석심리학은 다양한 임상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가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석심리학은 응용심리학, 의료심리학이며 우리 마음의 심층 무의식을 다루기에 심층심리학에 속한다. 융 심리학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의식과 무의식 등 서로 對極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정신 요소가 合一되는 소위 '대극의 합일'과 全體性²⁾이다. 정신의 전체성은 대극의 합일을 바탕으로 한 정신의 평형이나 균형과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恒常性³⁾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곧 정신의 전체성은 인간 정신

2) 전체성은 논자에 따라 全一性이라고도 칭해진다.

3) 생물체 또는 생물 시스템이 외적 및 내적인 여러 가지 변화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형태적 상태,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로 유지하여 개체로서의 생존을 유지하는 성질, 호메오스

의 두 가지 요소인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항상 통일된 전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융의 분석심리학은 정신의 무의식 요소가 지니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강조하여 무의식의 심리학이라고도 한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 등 수많은 대극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극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긴장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의식의 주인공인 자이는 神性한 에너지를 지닌 무의식과 부단한 대화를 통하여 더 높은 심리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융은 이렇게 의식을 중심으로 하던 인격 전체가 새로운 중심을 찾아서, 의식과 무의식이 합일되어 새롭게 균형 잡힌 성숙한 인격의 무게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기실현이라고 불렀다. 곧 자기실현은 의식을 바탕으로 한 표층의식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을 바탕으로 한 심층의식으로 인간의 심리적 인격이 변화·성숙되고 재탄생하는 것을 가리키며, 잡극 「도류취」에서의 자기실현은 곧 주인공이 본래 타고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불교 도탈극인 「도류취」는 분석심리학과 다음과 같이 상당히 비슷한 점을 여러 가지 지닌다. 첫째, 불교 도탈극인 「도류취」와 분석심리학은 내면세계를 중시하고 특히 심층의 무의식을 중요시 한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자신의 마음 밖에서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불교와 융 심리학의 기본 태도이다.⁴⁾ 둘째, 「도류취」와 분석심리학의 목표가 비슷하다. 불교의 목표가 見性成佛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불교도탈극인 「도류취」 또한 주인공 류취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분석심리학이라는 정신치료 역시 인간의 본성인 대극 합일의 전체성을 실현하여 病禍로부터 해방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⁵⁾ 그리하여 「도류취」와 분석심리학은 모두 심리적 고통의 제거를 통한 인격적 성숙과 새로운 존재로서의 재탄생을 추구하고 있다. 곧 「도류

타시스라고도 한다. 고등 척추동물에 있어서 혈액의 화학 및 물리적인 성질과 상태가 음식물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4) 이죽내, 「융 심리학과 불교사상」, 『불교평론』 59호, 2014.

5) 이죽내, 「융 심리학과 불교사상」, 『불교평론』 59호, 2014.

취)에서는 주인공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을 추구하는데 모두 인격적 성숙과 새로운 존재로서의 재탄생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인격적 성숙과 새로운 존재로서의 재탄생의 과정 중에 「도류취」와 분석심리학에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고통과 사련 등이 동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 고통과 시련은 통과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넷째, 「도류취」와 분석심리학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모두 무의식의 꿈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사용된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무의식의 언어인 象徴이 동원된다. 다섯째, 「도류취」와 분석심리학은 모두 마지막 단계에서 의식 너머의 초월성과 접촉하여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청정한 神性을 지닌다. 이와 같이 잡극 「도류취」는 분석심리학과 매우 비슷한 점을 여러 가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잡극 「도류취」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잡극 「도류취」를 연구한 기존의 선행자료는 국내나 중국에서 모두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문학에서 「춘향전」과 「심청전」 등을 분석심리학의 관점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몇몇 보인다.⁶⁾ 또한 국내에서 불교를 분석심리학의 관점으로 연구한 저서들이 이미 나와 있다.⁷⁾ 아울러 국내 분석심리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부영 교수는 분석심리학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였는데,⁸⁾ 여기에서는 이들의 연구 논문과 저서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을 전개하기로 한다.

6) 이선미 등, 「춘향전의 자기실현화 과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 『상담학연구』 11집, 2010.

설중환, 「심청전: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 13집, 2000.

7) 서동혁·이문성 공저, 『분석심리학과 불교』, 학지사, 2015.

이문성, 『선불교와 분석심리학의 만남』, 집문당, 2017.

8)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3.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2. 무의식과 원형

무의식은 문자 그대로 의식의 주체인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이다. 우리는 매일 밤 무의식 속에 잠기며 나머지 시간에도 정신활동이 무의식의 영향 아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다. 보통 우리는 인생의 시간에서 절반 이상을 무의식적 상태에서 지낸다.⁹⁾ 정신의학 분야에서 무의식의 존재와 작용을 발견하고 중시한 사람으로는 먼저 프로이트였다. 그는 “최초에 자아의식이 있었다. 이로 부터 억압에 의하여 무의식이 생겨났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의식은 의식의 부수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융은 인격 형성의 모체로서의 무의식을 강력히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관점은 어떻게 자아가 위험한 무의식의 충동을 승화시키는가를 강조하는 데 비해, 융은 어떻게 자아가 무의식의 창조성을 받아들이느냐에 집중한다.¹⁰⁾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무의식은 자아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모든 정신적 활동과 내용이 저장되는 저장소이다. 또는 괴로운 생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개인적인 갈등, 도덕적인 문제 등과 같이 일단은 의식적 경험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되어 방치되거나 망각된 것도 포함된다. 집단적 무의식은 융이 20 세기의 저명한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동시에 보통의 심리학에서 떨어져간 신비주의자로 불리게 된 이유¹¹⁾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무의식과 구별된다. ‘원시적 이미지’ 곧 ‘최초의 이미지’ ‘본래의 이미지’라고 부르고 있는 잠재적 이미지의 저장고이다. 예컨대 뱀이나 어둠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은 먼 옛날의 조상들이 무수한 세대에 걸쳐서 이러한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¹²⁾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수많은 신화적 상징으로 표현되고 경험되며 모든 의식된 마음에 활력을 주고 그 기능을 조절하여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되지 않고 통일된 전체성을

9) 서동혁 이문성 공저, 『분석심리학과 불교』, 학지사, 2015, 59쪽.

10)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34쪽.

11) 머리 스타인지움, 김창한 옮김, 『융의 영혼의 지도』, 문예출판사, 2004, 129쪽.

12) C.S. 홀(외) 지음, 최현 옮김, 『융 심리학 입문』, 범우사, 1998, 51쪽.

실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무의식은 충동의 창고, 의식에서 쓸어낸 쓰레기장이나 병적인 유아기 욕구로 가득 찬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창조의 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융의 무의식관은 무의식이 자율성을 지닌 창조적 조정능력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프로이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¹³⁾

분석심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무의식의 작용과 기능은 雜劇 「度柳翠」의 고사 전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度柳翠」의 주인공 柳翠가 도탈자인 월명화상의 권유를 뿌리치고 현실의 자아에 집착한 것은 무의식적 迷妄과 번뇌로 인한 결과였고, 아울러 월명화상이 고통 중의 류취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도 무의식적 꿈을 사용했다. 또한 극 중에서 류취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타고난 본래의 마음인 佛性を 깨우치며 俗界에서 청정하고 신성한 聖界로 진입하여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그녀가 신성한 에너지가 가득한 의식 너머의 초월적 무의식의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度柳翠」의 고사 전개에서 중요한 현실적 자아와의 갈등과 충돌, 해결, 재탄생 등 핵심적 내용에는 모두 여러 가지 무의식적 수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原型은 융이 제안한 개념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원초적인 행동 유형의 여러 조건들을 말하며, 꿈, 환상, 신화 및 예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우리 조상의 경험을 대표하는 원시적인 정신적 이미지 혹은 패턴이다. 원형은 인간이 삶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갖게 만드는 선행적 요인으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 되는 심리학적인 독특한 특성이다. 원형이 일으키는 감정은 평범한 감정이 아니라 누미노제(Numinose:¹⁴⁾ 신성한 힘)를 내포한 감동 또는 충격으로 그것은 초인적이며 또한 비안간적인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의식이 무의식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외면하거나 억압할 때 원형은 개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강력한 힘으로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때 나타나는

13)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3, 33쪽.

14) 독일의 철학자 오토(R. Otto)가 라틴어 numen(神的存在)의 형용사 numinos로부터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의 비합리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말. 초세속적, 압도적 절대 타자이며 경외의 감정과 종교적 매혹(tremendum ac fascinsum)을 내포하고 있다.

원형의 이미지(原型像)는 예시하며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원형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웅 원형, 지혜로운 노인 원형, 위대한 어머니 원형, 영원한 소년 원형 등이 있다. 이러한 原型像은 잡극 「度柳翠」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동원되고 있으니, 극 중의 도탈자 신분으로 등장한 월명화상은 지혜로운 노인의 원형상으로 등장하여 영혼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극 중 月明和尚 이름은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곧 '月明'이란 禪意를 지닌 것으로 청정하고 원만한 본성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으니,¹⁵⁾ 지혜로운 노인의 원형상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극 중의 말미에서 주인공 류취가 도탈자인 월명화상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청정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월명화상의 원형상의 강력한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자아와 자기

자아(Ego)는 개인 정신 작용인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이다. 곧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다. 분석심리학에 의하면, 자아는 무의식에서 태어난다. 무의식은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서 의식이라는 섬을 에워싸고 있다. 자아는 그러한 섬을 통치하는 수장이다. 자아는 한편으로는 지식의 확대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거나 또한 변화시킨다. 분석심리학에 의하면, 자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살펴 이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하는 기능이다. 의식의 중심으로서 의식을 통제하고 견고히 하는 것이 자아이지만 동시에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 받아들여 이를 동화시키거나 그 뜻을 인식하는 것도 자아의 몫이다. 그만큼 자아는 자기실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¹⁶⁾

15) 張則桐, 「元雜劇度柳翠與文字禪」, 『中國典籍與文化』第4期, 1999.

16)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32쪽.

자아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닌다. 만일 자아가 무의식에서 전해오는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아의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면 신경증 노이로제가 온다. 자아는 끊임없이 내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신의 전체성을 유지하여 무의식과 분리되지 않는 전체정신으로 향해야 한다. 雜劇「度柳翠」에서 극 중의 주인공 류취의 자아는 부단한 변화를 보여준다. 극의 전반부에서 류취의 자아는 무의식의 요구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다가, 극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류취의 자아가 무의식의 요구와 합일을 하여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 한다. 이러한 전체의 변화 과정 중에 자아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이어서, 고통을 거친 후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느냐의 여부는 오직 자아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자기(Self)는 분석심리학의 핵심적 심리학적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인간의 모든 정신현상 전체를 가리키며 동시에 전체인격의 중심이다. 자기는 전체인격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나타낸다. 즉 말하자면, '하나가 된 인격'이다. 자아의식만으로는 결코 하나가 된 인격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전체정신의 일부일 뿐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전체인격이 실현된다.¹⁷⁾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듯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전체정신의 중심은 자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자기실현은 의식의 중심인 자아가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에게로 부단히 다가서는 것을 가리킨다.

전체정신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을 특별히 자기원형이라고 부른다. 자기원형은 많은 원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 스스로 조정하는 우리 정신의 내적인 방향타이다. 자기원형과 자기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안의 그리스도, 우리 안의 佛性, 혹은 道라고 부르는 것을 분석심리학적으로는 모두 자기라는 용어로 일컬을 수 있다고 융은 말하였다.¹⁸⁾ 그리하여 자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本體, 우리의 파악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구조이며, '우리 안의 神'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다만 여기서 말하는 神은 심리학상의 神으로서 종교에

17)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33쪽.

18) 이문성, 『선불교와 분석심리학의 만남』, 83쪽, 집문당, 2017.

서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것과는 다르다.

그러면 잡극 「度柳翠」에서의 자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위의 논거에 근거하면 불교 도탈극인 잡극 「度柳翠」에서의 자기는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神' 곧 佛性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분석심리학에서 자아 성숙의 최종 목표가 자기실현이듯이, 불교 도탈극인 잡극 「度柳翠」에서 주인공인 류취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見性成佛' 즉 자신의 타고난 불성을 획득하여 成佛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페르소나와 그림자

페르소나(Persona)는 본시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사용하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아가 현실 중의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적응해나가는 과정 중에 형성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회집단이 개인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²⁰⁾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 도덕규범, 예의범절, 염치, 체면 등으로 자아에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인생의 전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참다운 내면세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페르소나와 새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융은 "페르소나는 假像이다"라고 말하여, 페르소나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 진정한 그 사람의 길은 아니라고 여겼다. 만일 사회적 역할과 의무로 대변되는 페르소나를 자신의 오직 유일한 사명이며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때, 즉 자이를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할 때, 자이는 무의식의 내면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의식이 무의식과의 관계를 끊으면 의식과 무의식은 따로 놀게 되어 결국은 여러 가지 신경증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²¹⁾ 그러면 이러한 페르소나가 잡

19)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34쪽.

20)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44쪽.

21)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46쪽.

극 「度柳翠」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는지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老旦이 관세음보살로 분장하고 小末로 분장한 善才童子를 데리고 등장) ……내 그 淨瓶 속의 버드나무 가지와 잎이 뜻밖에 먼지에 더럽혀졌으니 그 벌로 인간세상에 내려가 한 번 輪回를 해야 하느니라. (버들가지를) 杭州의 抱鑑營街 積妓牆 아래에서 妓女로 변화시켜 이름을 柳翠라고 해라. (그리고) 30 년 후 前生の 惡業을 다 갚은 때에 第16尊 羅漢인 月明尊者로 하여금 인간세상에 내려가 류취를 點化²²⁾시키고 다시 이곳 聖界로 되돌려 함께 禮佛 法會에 오르도록 하라.²³⁾

위의 인용문은 극 중의 주인공 류취가 자신의 페르소나를 가지게 된 경위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극 중 류취의 페르소나는 향주의 미천한 妓女의 신분이다.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는 사회적 기대·요구와 개인의 욕구와 야망이 두 가지 원천으로서,²⁴⁾ 상층 계급과 존경받는 신분을 추구하지만, 극 중의 류취는 미천한 하층계급인 기녀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류취가 전생에서 저지른 죄의 댓가이다. 류취는 전생에 大慈大悲의 화심인 관세음보살 淨瓶 속의 버드나무 가지로서, 비록 식물의 생명이지만 성스러운 존재인 聖物이었다. 그러나 류취의 전생인 버드나무 가지가 속세에 대한 오염된 생각을 하여 그 죄로 청정하고 신성한 聖界에서 俗界로 貶謫되었다.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극 중 주인공 류취의 페르소나인 妓女의 신분은 청정하고 신성한 聖界의 책임자인 관세음보살이 그녀에게 요구한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적 인격이며 동시에 외적 인격이다. 물론 극 중에서 주인공 류취가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는 전적으로 그녀의 자아에 달려 있다. 류취가 假像에 불과한 페르소나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자아를 페르소나와 동일시하여 무의식의 내면세계와 분리되면 그녀의 자기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분석심리학

22) 신선이 法術을 사용하여 사물을 변화시키듯 高僧이 法力로 인간을 教化시키는 것.

23) (老旦扮觀音領小末扮善才上)……且說我那淨瓶內楊柳枝葉上偶汚微塵，罰往人世，打一遭輪回，在杭州抱鑑營街積妓牆下，化作風塵匪妓，名爲柳翠，直等三十年之後，填滿宿債，那時着第十六尊羅漢月明尊者，直至人間點化柳翠，返本還元，同登佛會。王學奇 主編，《元曲選校注》，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1994，3369쪽.

24) 머리 스타인 지음, 김창한 옮김, 『융의 영혼의 지도』, 문예출판사, 2004, 169쪽.

에서 페르소나를 지닌 의식의 중심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전체정신인 자기로 다가서서 자기실현을 이루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세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한다. 곧 첫 번째는 그림자와의 만남, 두 번째로는 아니마/아니무스와 의 만남, 세 번째로는 곧 자기 원형과의 만남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세 가지 과정을 중심으로 잡극 「度柳翠」의 주인공 류취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실현을 이루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자는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인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 처음 부딪치는 무의식이다. 그림자는 주로 개인적 무의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의식 중에 자아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아직 자아에 동화되지 못한 자아에게서 버려진 또 다른 나인 것이다. 그림자는 그것이 어둡고 바람직하지 않아서 의식이 동화시키기를 거부하여 무의식으로 돌아가 버린 요소들과 의식에서 배척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미숙하고 원시적으로 남아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다.²⁵⁾ 그리하여 그림자는 낡은 방식들, 낡은 인격, 안일한 것들, 인격의 열등한 부분, 부정적 측면이며 감추어진,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의 총화, 잘 발전되지 못한 기능들이며, 강렬한 저항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²⁶⁾ 영국 소설가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1850-1894)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 중의 하이드 씨는 사실 이중인격자인 지킬박사의 부정적 인격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림자의 전형이며, 만일 「홍부전」의 홍부와 놀부를 한 인간의 두 가지 인격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놀부 또한 그림자인 셈이다. 자아의 의식에서 배척된 요소들인 그림자는 우리가 흔히 뉘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비난을 받을만한 생각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은 대표적인 그림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 속에는 없다고 부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성질들과 충동들, 즉 이기주의, 정신적 태만과 불성실, 비현실적 공상들,

25) 김성민, 「악의 문제와 그 극복에 관한 고찰: C.G. 융의 그림자 이론과 홍부전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2집, 2001.

26)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3, 73쪽.

책략과 계략, 부주의와 비겁, 돈과 재산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등 사소한 죄악들이 그것이다.²⁷⁾

이와 같은 그림자의 모습은 잡극 「度柳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극 중에서 그림자는 자아와 갈등과 충동을 일으키며 고사 전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곧 자아와 그림자의 갈등과 충동은 극에 생명과 활력을 부여하는 관건적인 요소이다. 그러면 잡극 「度柳翠」에서 그림자가 동원된 원문을 중심으로 극 중 그림자의 분석심리학적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자.

월명화상: 류취야, (세월은) 무상하고 빨리 흘러가지. 生死의 일은 중대하니 나와 함께 出家하자.

류취: 저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출가할 수 있겠어요?

월명화상: 류취야, 네가 지금은 늙지 않았지.

류취: 늙지 않았지요.

.....

월명화상: 류취야, 나와 함께 출가하자.

류취: 저는 나이가 어려 돈 벌기 좋잖아요. 그런데 사부님과 함께 출가하면 生死를 없게 해주나요?

월명화상: 류취야, 네가 만일 나와 출가하면 너로 하여금 生死에서 벗어나 六道輪回를 벗어나도록 해주지. 너는 그 문 앞에서 자주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도 않게 되지.

.....

(류취 어머니가 월명화상을 밀어내고 문을 닫는 동작을 한다)

월명화상: 류취야, 문열어! 너 정말 인연이 안되구나!²⁸⁾

위의 인용문은 「도류취」 제1절의 핵심적 내용으로, 류취의 부친 서거 10주기

27) C.G.Jung 외,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3, 173쪽.

28) (正末云:) 柳翠, 無常迅速, 生死事大, 跟我出家去來. (旦兒云:) 我年紀小, 如何出得家? (正末云:) 柳翠, 你如今不老了也. (旦兒云:) 我不老哩.(云:) 柳翠, 你跟我出家去來. (旦兒云:) 我年紀幼小, 正好覓錢, 可着我跟我出家去, 免的我生死么? (正末云:) 柳翠, 你若跟我出家去呵, 我着你脫離生死, 免却六道輪回. 則你那門前莫接頻來客, 心間休掛有情人.(卜兒做推正末出, 閉門科) (正末云:) 柳翠開門來, 你好是緣薄呵!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3378-3380쪽.

추모행사인 佛事를 배경으로 한다. 극 중에서 正末의 신분으로 등장한 월명화상은 피도탈자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출가를 권유한다. 그러나 류취는 자신의 페르소나인 기녀의 생활에만 집착하여 월명화상의 권유를 곧바로 거부해 버린다. 그녀의 출가 거부의 명분은 기녀 생활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다. 곧 여기에서 금전에 대한 류취의 탐욕과 집착은 자아의 그림자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금전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류취는 기녀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 및 어리석음, 곧 '탐진치(貪瞋痴)'를 三毒이라고 하여 열반을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번뇌라고 지칭하는데, 극 중에서 잡극 「도류취」의 작자는 三毒 중의 대표인 탐욕을 류취 자아의 첫 번째 그림자로 동원하였다. 이것은 아마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그림자 중에서 금전에 대한 탐욕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자가 그렇게 배치하였다고 여겨진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위의 극 중에서 자아의 개인적 무의식에 속하는 탐욕의 번뇌라는 그림자가 사용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아가 전체정신인 자기로 향하는 자기실현의 과정 중에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수반한 것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통과의례와 같은 것으로, 자아가 더 높고 넓은 존재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잡극 「도류취」에서 자아의 그림자는 비록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극의 전개에 활력을 주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심리학에서는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무의식의 그림자를 의식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곧 여기서의 의식화는 깨달음으로서 자아가 무의식의 그림자를 깨달아야 비로소 의식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체정신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극 중 류취의 자아는 迷妄과 번뇌의 집착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잡극 「도류취」에는 고사가 전개됨에 따라서 더욱 강렬한 그림자가 동원된다. 위의 제1절에서 금전에 대한 탐욕과 집착의 그림자가 극 중 핵심적 역할을 하듯, 제3절에서는 거의 출가를 결심하고서도 자신의 무의식적 성적 본능인 異性에 대

한 慾情이 자아의 그림자로 나타나 자아와 강렬한 충돌을 일으키며 관건적 역할을 한다. 극 중에서 류취의 자아는 아직 페르소나인 기녀의 역할에 집착하여 자아와 페르소나가 거의 동일시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분석심리학에서 자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더 짙어진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극 중의 새로운 그림자가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류취 모친: 애야, 하루만 자고 가렴.

류취: 사부님, 제 어머니가 하루만 자고 가라고 하시네요.

월명화상: 류취야, 俗念을 일으키지 말아. 네가 속념을 일으키면 나는 금방 안다.

류취: 사부님, 제가 감히 속념을 일으키지는 않겠어요.

(월명화상이 거짓으로 퇴장한다)

류취: 엄마, 員外는 어디 있어요?

.....

류취: 엄마, 문 좀 지켜주세요. 원외랑 한 마디 할게요.

월명화상: 류취야, 문 열어!

류취(당황해 하며): 사부님이 오셨네. 집에 들어오시도록 문 열어야지.

류취(사부를 보지 않으며): 사부님이 하필? 알고 보니 내 귀가 뜨거웠구나. 이 문을 닫아야지. 원외, 당신 생각나 죽겠어요.²⁹⁾

위의 인용문은 극 중 주인공 류취가 생명의 眞意를 상당히 깨달아 출가하기 전 마지막 관건적 시기에 보여지는 내용이다. 극 중에서 류취는 깨달음의 목표인 佛性を 상당히 깨달아 거의 문턱에까지 도달했으나 자아의 새로운 그림자인 異性과의 욕정과 갈등을 일으킨다. 극 중 류취의 욕정 대상은 員外이다. 員外는 본시 재력이 좋은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구하던 것을 가리키던 것으로, 극 중의 원외는 재력이 좋은 남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점에서 류취의 새로운 그림자는 재력을 지

29) (卜兒云:) 孩兒也, 你在家中住一夜去。(旦兒云:) 師父, 柳翠의 母親要留柳翠家中住一夜。(正末云:) 柳翠也, 你休凡心動. 你若凡心動呵, 我便知道. 我也去。(旦我云:) 師父, 柳翠并不敢凡心動。(正末虛下)(旦兒云:) 奶奶, 員外在那裏?(旦兒云:) 奶奶, 你看着門, 我和員外說一句話咱。(正末上, 云:) 柳翠也, 開門來。(旦兒慌科, 云:) 師父來了也, 我開開這門, 師父家裏來。(做不見科, 云:) 那得那師父, 元來是我的這耳熱. 待我關上我這門. 員外, 則被你想殺我也.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3400쪽.

닌 이성에 대한 욕정의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에서 이성에 대한 욕정의 집착은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거대한 충동의 그림자로서 동물적 본능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본능은 집단적 무의식의 구성 요소로서 강력한 힘을 지닌 원형과 매우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잡극 「도류취」의 작자가 이성에 대한 무의식적 본능인 욕정을 류취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의 그림자로 안배함 것은 아마도 무의식적 본능을 의식화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극 중 이성에 대한 욕정의 집착이라는 그림자는 자기실현에 도달하기 위한 필연의 고통 즉, 통과의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꿈과 상징

꿈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을 대표하는 정신 행위이다. 분석심리학에서도 꿈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전체정신인 자기에 다가서는 자기실현의 과정에 있어서, 의식의 일방성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의식이 약화된 상태인 꿈을 통하여 전달하기 때문이다. 곧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되어 그림자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자기실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꿈은 자신만의 무의식적 언어인 상징을 통하여 자아에게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꿈은 무의식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하다. 잡극 「도류취」에도 주인공 류취가 두 차례 꿈을 꾸는데 원문을 중심으로 꿈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자.

류취: 저는 류취예요. (아버님) 佛事를 다 끝내고 나서 그 월명화상님을 뵈었는데, 잠 속 꿈에서도 월명화상을 봅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梨花猫로 변했어요. 제가 오늘 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관청에서 저를 부르니 어떡하죠. 그 월명화상을 만날까 걱정되니 제가 이 앞거리로 가지 않고 뒷골목으로 가야지요.

월명화상: 멀리서 보니 류취가 이쪽으로 가구나. 이쁜 아가씨, 어떻게

나를 피해 갈 수 있겠어?

.....

월명화상: 류취야, 梨花猫로 변한 것을 무서워하고는 왜 이 월명존자에게 묻지 않니?³⁰⁾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피도탈자의 신분인 류취는 도탈자인 월명화상을 꿈 속에서도 만난다. 그런데 류취의 꿈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것은 류취가 꿈속에서 고양이인 梨花猫로 변하였으며, 월명화상이 그 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는 六道輪廻라는 세계관이 핵심적인데, 일체의 중생이 자신의 지은 바 선악의 業因에 따라 天上道·人間道·阿修羅道·畜生道·餓鬼道·地獄道の 육도세계를 끊임없이 윤회전생(輪廻轉生)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류취는 꿈 속에서 고양이로 태어났으니,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현실 속의 惡業으로 인하여 畜生道에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양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생에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꿈 속에서 고양이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상징은 분석심리학 중 꿈에 대한 탐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징은 전언어적 단계에 속한 상상적 사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표상된다. 그리고 상징은 강력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누미노제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꿈의 이미지나 종교상징이 때때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변환을 가져오는 것은 상징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 때문이다.³¹⁾

분석심리학에서 꿈에 대한 분석은 자기실현의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의 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의 창조성이 많은 경우 꿈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융에 의하면 꿈은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무의식에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분석심리학에서

30) (旦兒上, 云:) 妾身是柳翠, 自從做罷好事, 見了那和尚, 我睡裏夢裏, 便見那和尚. 我夜來做了一個夢, 夢見變做個梨花猫兒. 我今日欲待問人, 爭奈喚官身. 我不往前街里去, 則怕撞見那和尚, 只後巷里去波. (正末上, 云:) 遠遠望見柳翠往這里去了, 小鬼頭, 你怎生躲的過貧僧也. (云:) 柳翠, 你怕做梨花猫兒, 怎生不問我這月明尊者來?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3385쪽.

31) 김성민, 「C.G. 융의 상징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집, 2013.

는 꿈의 보상적 기능이라고 부른다. 사실 자아의식은 본래 외부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무의식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정신기능을 사용한다. 그 결과 정신의 전체적인 균형은 깨지며, 그때 꿈은 그러한 상황을 보상하려고 여러 가지 상징들로 나타나서 정신적 균형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³²⁾ 그러나 잡극 「도류취」에서 주인공 류취는 꿈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자아는 꿈을 통한 메시지를 무시해버린다. 곧 그녀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일방적으로 페르소나와 동일시된 길을 걸을 뿐이며, 기녀 생활에 집착하여 월명화상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 이에 도탈자인 월명화상은 위의 꿈보다도 더욱 강렬한 꿈의 수법을 사용하여 피도탈자인 류취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월명화상: 잠들었구나. 너로 하여금 실컷 잠들도록 하지. 이런 인간은 무서운 꿈을 꾸지 않으면 정말로 깨닫지를 못하지. 류취야, 빨리 깨어나라. 관청에서 부른다. (거짓으로 퇴장한다.)

염라대왕 (獄卒인 牛頭와 鬼力을 데리고 등장): ……, 지금 항주의 류취가 高僧 羅漢을 더럽혔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애들아, 류취를 잡아오너라. (鬼力이 류취를 잡아 무릎을 꿇린다)

염라대왕: 너는 인간세계에서 고승 나한을 더럽혔으니 牛頭와 鬼力은 류취를 참수하고 보고하라.

……

월명화상: 염라대왕이시여, 류취는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염라대왕: 류취가 고승을 더럽혔습니다.

월명화상: 류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염라대왕: 류취의 죄를 용서할 수 없소. 鬼力아, 빨리 죽여라. 빨리, 잠속 꿈이라고 미루지 말고.

류취(놀라 깨며): 무서워 죽겠구나³³⁾

32) 김성민, 「꿈의 의미와 꿈의 보상적 기능: C.G. 융의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집, 2010.

33) (云:) 你睡着了, 我着你大睡一覺. 這等人不着他見個惡境頭, 他可也不得省悟. 柳翠, 你快醒來, 喚官身哩. (虛下) (外扮閻神領淨牛頭鬼力上, 云) ……, 今爲杭州柳翠, 觸汚聖僧羅漢, 更待干罷, 牛頭鬼力與我攝過柳翠來者. (鬼力做拿旦兒跪科) (閻神云:) 爲你在人間觸汚聖僧羅

위에서 월명화상은 유취가 잠든 사이에 그녀에게 무서운 꿈을 꾸도록 만든다. 소위 도탈극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惡境頭’라고 한다. ‘惡境頭’는 ‘惡鏡頭’라고도 부르며, 도탈극에서 도탈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도탈자에게 인위적으로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인공 류취는 꿈 속에서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아 斬首刑에 처해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번의 꿈은 이전의 꿈보다도 유취에게 더욱 큰 공포감을 주었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이 부분은 전체 고사전개의 전환점이 되어, 류취는 드디어 불교의 이치를 깨달으며 출가를 생각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꿈을 통한 무의식의 보상작용은 첫 번째 꾸었던 보상작용에 비해서 더욱 강렬한 보상작용을 일으킨다. 융은 무의식의 보상작용은 모자란 것을 단순하게 채워주는 ‘보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어떤 꿈에서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를 보상하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 그 사람은 그것을 의식에 동화시켜서 그 일방성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심리학에서 꿈은 언제나 정신의 전체적인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의식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그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인격의 온전한 통합을 향한 커다란 틀의 기획 속에서 이루어진다.³⁴⁾ 그러한 의미에서 꿈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자기실현의 과정이다. 의식과 무의식 등 대극의 합일을 통한 전체정신인 자기가 작용해서 사람들의 분열되어 있는 정신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전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중에 꿈이 자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융 분석가 제임스 홀은 꿈의 창조자를 자기라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꿈을 꿈으로써 그들은 자기의 작용을 알게 되고, 그의 정신에서 부족한 것들을 파악하여 그것들을 보충시키고 통합함으로써 인간정신의 본래적인 모습인 온전성(wholeness)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점에

漢, 牛頭鬼力將柳翠斬訖報來。……, (正末云:) 閻神, 柳翠犯着何罪? (閻神云:) 因柳翠觸污着聖僧來。(正末云:) 柳翠的罪過, 饒的也, 饒不的? (閻神云:) 柳翠的罪過, 饒他不着。鬼力, 快下手者。疾。休推睡裏夢裏。(旦兒做驚醒科, 云:) 兀的不嚇殺我也!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3388-3389쪽.

34) 김성민, 「꿈의 의미와 꿈의 보상적 기능: C.G. 융의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집, 2010.

서 볼 때 잡극 「도류취」에 나타난 두 번의 꿈은 모두 분석심리학 중 꿈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6. 아니무스와 자기실현

분석심리학의 전체적인 자기실현 과정인 무의식의 의식화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무의식의 그림자와의 만남이었는데, 두 번째는 아니마/아니무스와 만남이다. 남성의 여성성을 아니마(anima)라고 부르고, 여성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라 부른다. 아니무스(animus)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가리키며, 여성에 있어서 조상 대대로 남성에 관해서 경험한 모든 것의 집전물이다. 인간은 누구나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누구나 남성 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민족·종족·국가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융의 아니마/아니무스의 학설의 핵심은 자아와 자기 사이를 매개하는 어떤 자율적 기능인 무의식의 내적 인격의 학설이지만, 실제적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자기실현에서 어떻게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학설이다.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에 대응하는 내적 인격, 자아를 자기에게 이끌어주는 인도자, 화학용어를 빌리자면 두 가지 물질의 화합을 매개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³⁶⁾ 그러면 이와 같은 류취의 아니무스가 잡극 「도류취」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계언을 말하다) 다투는 생각 없애지 못했으니, 黑白의 마음 먼저 잊어야지.

無敵의 길목에서, 찾을 사람 없는 걸 철저히 깨닫지.

35) 김성민, 「꿈의 해석과 융의 심리학」, 『기독교사상』 4집, 1997.

36)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135쪽.

(계언을 말하다) 마른 해골 하나, 東君神 손바닥에 들고 있더니,

한 점 더럽혀진 뒤, 이 세상에 던져버렸네.

(계언을 말하다) 地·水와 火·風의 (네 가지) 要素는, 無爲公에 포함
되지만, 하루 아침 無爲公 사라진 후, 地·水·火·風은 각자 따로 흩어진
다네.....

류취: 사부님과 함께 출가하겠어요. 관청에 부름받을 때 입었던 그 옷
들을 먼저 태워주세요.

류취 모친: 애들아, 관청에 부름받을 때 입었던 류취의 옷을 가져와라.

류취 (계언): 번뇌 제거함을 뼈대로 삼을 걸, 반평생 완전히 깨닫지 못
했구나. 나귀나 말 같은 몸 벗어나, 天堂 길을 正果³⁷⁾로 얻었네. 오늘에야
진짜 스님 만나, 옷을 태우고 (불가에) 귀의하네. 제자가 옷을 태우니, 스
승님은 당연히 불을 지펴야죠.

월명화상: 그래. 제자가 옷을 태우니, 스승이 당연히 불을 지펴야지. 류
취의 옷을 태웠도다.³⁸⁾

위의 인용문은 제3절의 핵심으로 전체 극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월명화상은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하여 류취의 집에서 바둑과 雙六³⁹⁾ 및 氣球라
는 세 가지 기예로써 그녀와 겨루며 불교의 이치가 담긴 세 가지 偈言⁴⁰⁾을 전해주
면서 그녀를 도탈시킨다. 첫 번째 계언에서는 바둑을 빌어 서로 간에 죽이고자 하
는 黑白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곧 無敵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불가적 이치를 말하
였고, 두 번째 계언에서는 쌍륙 때 사용하는 마른 해골 모습의 주사위가 류취의
지금 상황임을 비유하고 있다. 또 세 번째 계언에서는 氣球 놀이를 빌어서 만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地·水·火·風⁴¹⁾의 원리에 따라 사람의 육신도 죽으면 地·

37) 수행함으로써 얻은 깨달음의 결과

38) (偈云:) 未去爭交意, 先忘黑白心. 一條無敵路, 徹了無人尋.

(偈云:) 一把枯骸骨, 東君掌上擎. 自從有點污, 拋擲到今生.

(偈云:) 地水與火風, 包含無爲公. 一朝公去後, 四大各西東.

(旦兒云:) 我跟師父出家去, 先將我那當官身衣服燒毀了罷. (卜兒云:) 下次小的每, 將過柳翠
當官身的衣服來者. (旦兒偈云:) 五漏作形骸, 半生全不悟, 脫却驢馬身, 正果天堂路. 今日遇
眞僧, 燒衣便歸去, 弟子燒衣, 師當下火. (正末云:) 是. 弟子燒衣, 師當下火. 燒了柳翠的衣服
也.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3398-3400쪽.

39) 두 사람 또는 두 편이 15개씩의 말을 가지고 2개의 주사위를 굴러 사위대로 판 위에 말을
써서 먼저 나가면 이기는 놀이

40) 불교계에서 불교적 교리를 담은 한시의 한 형태로 偈頌이라고도 한다.

41) 사람의 육신이나 일체 만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요소로서, 사대(四大)라고도 한다.

水·火·風의 네 가지 요소가 흩어져 없어져버릴 뿐이라는 불교적 哲理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류취는 월명화상의 또렷하고 분명한 불교적 哲理에 감복하여 극 중에서도 같이 출가를 결정하며, 자신이 기녀로서 관청에 부름을 받을 때 입었던 옷을 불태워 버리고 불가에 귀의하고자 한다.

분석심리학에 의하면 여성은 자기 안의 아니무스를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투사한다. 그리고 인간 정신 속에 전승된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는 일반적으로 생각, 의견, 판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의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명징성과 불교적 철리성을 지닌 월명화상의 이미지는 류취의 아니무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분석심리학의 선구자인 이부영은 아니무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실현에서 아니무스의 의식화 작업은 여성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된 좋은 점을 부정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아니고 여기에 여성의 무의식의 창조적 남성성, 즉 판단의 객관성과 명징성, 용기와 진취성, 열린 마음, 융통성 있는 실제적 추리능력을 보태는 작업이다.⁴²⁾

이부영의 위의 글에 의하면 철리적 의견으로 명징성 있는 계언을 말하던 월명화상의 이미지는 여성인 류취의 무의식의 창조적 남성성인 아니무스로서, 남성인 월명화상에게 투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아니무스는 4단계의 발전 단계를 갖는데, 첫 단계는 육체적인 영웅이며, 둘째는 낭만적인 남성, 행동적인 남성으로 전쟁 영웅의 이미지이다. 셋째는 교수나 목사의 상으로 '말씀'의 사자이며, 넷째는 종교적 체험의 중개자이며 영적 진리로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안내자의 이미지 단계이다.⁴³⁾ 이러한 아니무스의 4단계 발전론에 의하면 류취의 아니무스는 지혜로운 老賢者의 原型像과 닮은 것으로, 네 번째의 발전 단계인 영적 진리로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안내자의 이미지 단계라고 하겠다.

전체정신을 말하는 자기와의 만남은 분석심리학적 자기실현의 마지막 단계이

불교에서는 우주 만물은 이 지·수·화·풍의 이합집산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42)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148쪽.

43) 이부영,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100쪽.

다. 곧 자아가 자기로 다가서는 것을 말한다. 분석심리학에서 전체정신의 핵심은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등 대극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합일되어 한쪽으로의 편향성을 지양하면서 전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분석심리학의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부단한 대화를 통하여 심리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체정신이다. 그리고 자기실현을 이루는 핵심적인 방법은 무의식의 의식화이다. 곧 자아가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시켜 자신의 의식의 지평선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잠극 「도류취」에는 이러한 자기와의 만남의 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류취: 엄마, 저 사부님과 출가하겠어요.

류취 모친: 내가 가면 나는 어찌지?

월명화상: 류취야, 배를 타라 배를 타라.

류취: 사부님, 어찌 배는 있는데 사공이 없지요?

월명화상: 류취야, 사공을 요구해 뭐 할 거야? 내가 오로지 여기서 남들에게 강을 건너게 해주니라.....

월명화상: 류취야, 언덕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려라.....

류취: 저 류취는 잠시 숲 속에 들어왔어요. 내일 다시 禪定⁴⁴)에 대해 물어야지요. (퇴장)

長老: 사부님, 류취가 東廊 아래에서 坐化했습니다.

월명화상: 내가 류취를 데리고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世尊을 뵈러 가야겠다. (퇴장).....

관세음보살(善才童子를 데리고): 저는 南海의 관세음보살입니다. 월명존자로 하여금 류취를 도탈시키도록 보냈으니, 조만간 올 거예요.

월명화상(류취와 함께): 보살님, 월명존자가 도탈시킨 류취가 왔습니다.

관세음보살: 류취야, 너 버들가지와 잎이 먼지로 더럽혀져 그 별로 인간세상에 내려가 전생의 빛을 갠도록 시켰는데, 오늘 월명존자가 너를 불법에 귀의하도록 인도했느냐?

류취: 보살님께 머리 숙이나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월명화상: 류취야, 부처님의 偈頌을 들어보라. 계송을 노래하다. 일체有爲法⁴⁵)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또

44) 불가에서 반야(般若)의 지혜를 얻고 成佛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행 방법 중의 하나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고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하여 入靜三昧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한 번개 같으니, 응당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

관세음보살: 류취야, 들어라. ……, 愛慾과 탐욕 그리고 화념을 모두 버리고 부처님의 설법에 함께 하여라.⁴⁶⁾

위의 인용문은 잡극 「도류취」의 마지막 후반부에 속하는 것으로 주인공 류취가 월명화상의 도탈을 계속 거부하다가 끝내는 불교적 진리를 깨달아 불교에 귀의하는 내용이다. 극 중에서는 류취가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불가의 세계로 귀의하는 것을 배를 타고 강을 넘어가는 장면을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후 류취는 숲 속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가 앓은 채로 入滅하며, 도탈자인 월명화상은 坐化한 류취를 데리고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天上의 관세음보살에게 보고하려 갔으니, 이것은 류취가 세속적 세계에서 청정하고 신성한 彼岸의 세계로 진입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재탄생하였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잡극 「도류취」는 불교도탈극의 일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니, 주인공 류취는 고통과 시련 속에 상징적인 죽음을 통과하여 마침내는 생명의 진의를 깨달아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위 인용문의 내용은 자기실현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와의 만남과 매우 흡사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은 전체정신인 자기가 인간으로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佛性和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잡극 「도류취」의 류취가 극 중에서의 같이 불성을 깨닫는 것은 분석심리학적 자기실현의 목표인 자기에 접근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45) 여러 인연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

46) (旦兒云:) 奶奶, 我跟師父出家去也。(卜兒云:) 你去呵, 我可怎了?(正末云:) 柳翠, 上船上船。(旦兒云:) 師父, 怎生有船無梢公?(正末云:) 柳翠也, 要那梢公怎么。我一意在這裏渡人來。……, (云:) 柳翠, 到岸了也, 可下船來。(旦兒云:) 我柳翠且歸林下, 明日再來問禪。(下)(長老云:) 上告我師和尚, 柳翠在東廊下坐化了也。(正末云:) 老僧引着柳翠, 駕起祥雲, 見俺世尊來。(下)……, (觀音領善才上, 云:) 我南海觀世音菩薩, 着月明尊者度脫柳翠去, 這早晚敢待來也。(正末同旦兒上, 云:) 菩薩, 我月明尊者, 度脫的柳翠來了也。(觀音云:) 柳翠, 因爲你枝葉觸汚微塵, 罰往人世, 填還宿債, 今日月明尊者引度你歸空了也。(旦兒云:) 菩薩稽首, 弟子省悟也。(正末云:) 柳也, 聽我佛的偈。(偈云:)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觀音云:) 柳也, 你聽者。……, 畢罷了愛慾貪嗔, 同共到靈山會上。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3401쪽, 3412-3413쪽.

있다. 특히 불교에서 '깨달음'이 선정과 삼매의 과정을 통하여 무의식의 심층의식을 접촉하고 발견하는 것, 곧 현상 세계 너머의 초현상 세계에 대한 발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류취의 불가적 깨달음은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극 중 류취가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한 것은, 분석심리학에서 인격 성숙을 위하여 대극의 합일을 통한 전체성 정신을 담보로 새로운 심리적 존재로 재탄생한 것을 자기실현의 목표로 한 점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불교도탈극인 잡극 「도류취」 중 류취가 불성을 깨달아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과정과 목표는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과정 및 목표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잡극 「도류취」가 불교적 종교극인 반면에, 분석심리학은 자연과학에 기반을 둔 경험심리학인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곧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가운데 무의식을 의식으로 동화시키는 구체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교도탈극인 잡극 「도류취」에서 류취는 깨달음을 얻어 의식으로 동화시키는 구체적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 분석심리학에서는 가능한 많은 무의식을 의식화시켜 심리적 균형을 이룬 온전한 인격의 인간을 추구하지, 모든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되어 全人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 끝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잡극 「도류취」는 류취의 해탈을 목표로 하고, 극 중의 류취는 불성을 깨달아 解脫에 도달하여 청정하고 신성한 세계의 종교적 존재로 재탄생하였다.

7. 결론

잡극 「도류취」는 불교도탈극으로 도탈자인 월명화상이 피도탈자인 류취를 현실 세계 속에서의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구제하여 새로운 불교적 존재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극 중의 류취는 본시 전생에 관세음보살 淨瓶 속의

버드나무 가지로서 비록 식물이지만 聖物의 존재였으나 오염된 생각을 한 번 하여 그 죄로 杭州에 기녀로 폄적되었다. 이후 류취는 기녀 생활 중 많은 고통으로 지내었으나, 월명화상의 끈질긴 도탈로 마침내 다시 청정하고 신성한 세계에서 재탄생한다.

분석심리학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융이 창시한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융은 다양한 임상 경험과 자신의 심리 체험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 등 서로 대극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합일을 통해 심리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체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융의 분석심리학은 무의식의 창조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의 심리학이라고도 부른다.

불교도탈극인 잡극 「도류취」는 분석심리학과 여러 가지 점에서 비슷한 점을 지녔다. 둘 다 인간의 내면세계, 특히 심층의 무의식을 중시하며, 불성을 깨닫고 자기실현을 이루어 새로운 존재로의 재탄생을 목표로 한다. 또 목표의 완성 도중에 모두 고통과 시련 등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무의식의 꿈을 고통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며, 꿈 속에서 무의식의 언어인 상징의 수법을 사용한다. 아울러 잡극 「도류취」와 분석심리학은 마지막 단계에서 모두 의식 너머의 초월성과 청정한 神聖을 지닌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잡극 「도류취」를 분석심리학적 자기실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잡극 「도류취」의 주인공 류취는 극 중에서 杭州의 기녀로 폄적되었는데, 기녀 신분은 천상의 세계가 그녀에게 별의 댓가로 요구한 사회적 역할, 곧 분석심리학의 페르소나이다. 극 중에서 류취의 자이는 기녀라는 페르소나에 집착하여 월명화상의 출가 권유를 거부하였다. 분석심리학적 용어로 류취는 자이를 페르소나와 동일시하여 전체정신인 자기라는 새로운 존재로의 재탄생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다.

분석심리학의 그림자는 자아가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림자는 주로 개인적 무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자아에게서 동화되지 못하고 배척된 '또 다른 나'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하이드 씨는 이 중인격자 지킬박사의 부정적 인격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그림자이다. 잡극 「도류

취」에서 류취는 금전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보여주고 아울러 이성인 員外에 대한 욕정과 집착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금전적 집착과 욕정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그림자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이와 같은 류취의 그림자는 그녀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주는데, 이러한 점은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가 고통을 동반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류취의 그림자는 극 중에서 갈등과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적으로 극의 고사 전개에 활력을 주는 필요악의 구실을 한다.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를 해결하여 자기실현에 이르기 위해 꿈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잡극 「도류취」에서는 두 번의 꿈을 사용하였으며, 꿈 속에서는 무의식의 언어인 상징의 수법이 동원되었다. 분석심리학에서 꿈은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교정하려는 목적을 지니는데, 이것을 꿈의 보상적 기능이라고 부르며, 잡극 「도류취」 중의 꿈도 보상적 기능을 일으켜 유취가 자기실현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성을 의미하는데, 류취는 극 중에서 자신의 아니무스를 월명화상에 투사하였다. 그리하여 류취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 무의식으로 잠재해 있는 아니무스를 통하여 불가의 이치를 깨달았으며, 이를 근거로 그녀는 자기실현에 다가섰다. 이러한 점에서 류취의 아니무스는 류취의 자아가 전체성을 갖춘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분석심리학의 최종 목표는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등 서로 대극을 이룬 것을 조화롭게 합일하여 심리적으로 균형을 이룬 새로운 존재로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곧 자아가 자기로 다가서는 것이 목표이다. 융은 분석심리학의 심리적 개념인 자기를 불교의 佛性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잡극 「도류취」에서 류취가 마침내 불성을 깨닫는 것은 분석심리학의 자기실현과 비슷하다. 다만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자기로 다가서서 穩妥한 인격의 인간이 되는 것을 추구했지만, 불교도탈극인 「도류취」에서는 주인공 류취가 불성을 깨달아 해탈하여 完전한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도류취」가 불교적 종교극인데 비하여, 분석심리학은 자연과학으로서 경험심리학인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參考文獻〉

-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 張則桐, 「元雜劇度柳翠與文字禪」, 『中國典籍與文化』 第4期, 1999.
- 이죽내, 「용 심리학과 불교사상」, 『불교평론』 59호, 2014.
- 이선미 등, 「춘향전의 자기실현화 과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 『상담학연구』 11집, 2010.
- 설중환, 「심청전: 분석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 13집, 2000.
- 김성민, 「악의 문제와 그 극복에 관한 고찰: C.G. 융의 그림자 이론과 흥부전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2집, 2001.
- 김성민, 「C.G. 융의 상징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집, 2013.
- 김성민, 「꿈의 의미와 꿈의 보상적 기능: C.G. 융의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집, 2010.
- 서동혁·이문성 공저, 『분석심리학과 불교』, 학지사, 2015.
- 이문성, 『선불교와 분석심리학의 만남』, 집문당, 2017.
-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3.
- _____,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2001.
- _____,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3.
- 머리 스타인지음, 김창한옮김, 『융의 영혼의 지도』, 문예출판사, 2004.
- C. S. 홀(외) 지음, 최현 옮김, 『용 심리학 입문』, 범우사, 1998.
- C. G. Jung 외,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173쪽, 집문당, 1983.

〈Abstract〉

The Study on Drama of Yuan Zaju 「DuLiucui」
- Analytical-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Process of the Self- realization

Kim, Kwang-Young

Drama of Yuan Zaju 「DuLiucui」 is Buddhism drama of transcendence. The heroine of this drama is Liucui. She after severe trial enters sacred world with the assistance

of Yueming monk.

Carl Gustav Jung (1875 - 1961) was a Swiss psychiatrist and psychoanalyst who founded analytical psychology.

Analytical-Psychology is Psychology of unconsciousness. Analytical-Psychology put emphasis on balance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Drama of Yuan Zaju 「DuLiucui」 and Analytical-Psychology is pretty similar in many ways.

Among the central concepts of analytical psychology is individuation—the lifelong psychological process of differentiation of the self out of each individual’s conscious and unconscious elements. Jung considered it to be the main task of human development. He created some of the best known psychological concepts, including synchronicity, archetypal phenomena,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e psychological complex, and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Persona, defined as the up most external personality, involves social behavior playing a specific role to establish constant relationship with others in a society. In Drama of Yuan Zaju 「DuLiucui」 heroine Liucui is prostitute. Her Persona is prostitute.

Shadow is the dark part of ego formed by the inferior and immature personality of unconsciousness and repression of consciousness of human psyche. In Drama of Yuan Zaju 「DuLiucui」 greed and sexual desire is her shadow.

C. G. Jung insists that human being is bisexual in nature. Animus is the male aspect in the women’s collective unconscious and it is the archetype through which we generally communicate with the collective unconscious. It is also important to get into touch with the collective unconscious for self-realization. In Drama of Yuan Zaju 「DuLiucui」 the animus of Liucui is guide of wisdom. In Drama of Yuan Zaju 「DuLiucui」 self-realization is aim of heroine.

Key words: Yuan Zaju 「DuLiucui」, Analytical-Psychology, Persona, Shadow, Animus, Self-realization

이 논문은 2020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2월 3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